

지난 12월 초, 97년도에 활동하게 될 제 12대 여학생회와 제 7대 동아리 연합회의 새로운 정·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신입 회장단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제 12대 여학생회 회장 95 김수빈, 부회장 95 이미정



먼저 제 12대 여학생회 정·부회장에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선 당선 소감을 한 마디씩 해주시겠습니까?

김 : 여학생회 회장에 당선되어 기쁩니다. 지난 여학생회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제대로 되지 않고, 여학우들의 호응도 많이 얻어 내지 못한 감이 있는데, 12대 여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 이번 선거의 경우 홍보가 늦어서 선거 유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년까지 80%에 달하던 선거 참여율도 올해는 62%에 그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학생회가 여학생 모두의 대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학생회에 출마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여학생회는 여학생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간부의 수도 부족했고 할 일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내에서 여학생회의 의미도 뚜렷하지 않아 여성학회로 바꾸자는 의견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여학우들의 문제를 찾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찾을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 아닐까요? 여학생 수가 적은 우리 학교인 만큼 여학생들만의 대표체가 절실히 필요하고, 여학생들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1대까지 여학생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11년간 지속되어 온 여학생회의 활동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할 일을 못 찾았다는 것이겠

죠. 여태까지 여학생회의 중점 목표가 여학생들의 친목 도모였기에 11대 여학생회의 주요 계획에도 신입생 환영회와 여학생 야유회 등이 있었으나 모두 여학생들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2대 여학생회의 주요 활동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난 11대 여학생회에서 시작한 여성학 소모임의 경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소모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학 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제작된 교양강의로 개설되었다가 없어진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름뿐인 행사로 굳어졌던 여성학교를 제대로 된 행사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예전 같이 여학우들의 수가 적을 때나 가능했던 친목도모는 지금의 현실에는 잘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 12대 여학생회에서는 여성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여학우들이 여학생회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학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 : 우선 여성 문제에 무관심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특히 더 자아 실현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아실현을 이루어 내는 것만으로도 여성문제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성공만으로 절대로 획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학생회는 전체적인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여성문제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 여학생들의 말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여학생회의 활동이 나랑 관계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질책을 해도 좋으니 여학생들이 목소리를 좀 내어주세요. 물론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 욕심이지 회들도 열심히 해야겠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도 모든 여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12대 여학생회는 여성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데 중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여학생회에 대한 의견은 우리마을의 Forum/Feminism보드에 올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 94남호근, 부회장 95 김형준

제 7대 동아리 연합회에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을 한 마디씩 말씀해주시지요.

남 : 당선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는데,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김세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김 : 선거 준비가 곧 사업 준비일 정도로 준비 기간이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리 대표자 분들께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아리 연합회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남 : 평소 동아리와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발전의 가능성도 보였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 : 동아리 연합회의 역할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었고, 그것은 누군가가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문제들로 많은

시간을 망설이다가 최근에서야 힘겹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6대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6대 동연은 강한 의지와 창의력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연 집행 상의 제약 조건들을 스스로 제거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동아리 소개의 밤' 행사의 경우 처음 있던 시도여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혁신적인 시도였고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동아리 문화제'에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97년도 7대 동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신념하에 모든 일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다양성의 주제인 동아리들이 그들의 개성을 능동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동연의 집행력을 지원하여 여러 제약조건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주어, 그것을 다른 주제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동아리들간의 대화, 동아리와 동연과의 대화, 학교측과의 대화, 총학생회 및 언론사와의 대화에서 보다 명확한 통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미흡했던 대동제나 동아리 문화제를 모든 동아리들이 능동적으로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 것이며, 6대의 첫 시도에서 얻은 시행착오들을 거울 삼아, 97년도의 동아리 소개의 밤은 보다 완성도 높은 행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동아리 대표자 분들의 조언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우리 마을 BBS에 'circle/DongYon'에 올려주시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남 : 먼저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동아리와 동연이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연은 동아리 대표자들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연이 먼저 나서서 동아리의 문제를 상의해야하나, 여러 동

아리들의 문제를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동아리 대표자 분들이 동연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건의를 해주십시오. 동아리들의 다양성 존중에 기본 원칙을 두고, 그런 다양성을 능동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동아리가 충분히 학우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있는 활동임을 숙지하시어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은 제 3학생회관의 설립입니다. 이에 대한 학교측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출마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동안 힘이 되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고민들을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지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년 동안 수고하신 6대 동연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혜정 기자